캠핑카로, 택시로…'니로 플러스'로 올라 타세요

기아, 브랜드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니로 플러스' 공개

1세대 니로 EV 기반 택시 전용·업무용·여가용 개발 외장 신규 하이루프 적용 전고 높이고 2열 더 넓어져 택시 전용 '올인원 디스플레이' 주요 기능·정보 통합

기아가 브랜드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를 공개했다. 기아의 첫 PBV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한 '니로 플러스'로, 기아는 이를 통해 PBV의 청사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기아에 따르면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파생 PBV 모델이다.

기아는 글로벌 지역에서 검증된 1세대 니로 EV 기반의 파생 PBV 니로 플러스를 출시해 국내 택시 서비스 종사 고객은 물론 법인, 지자체 및 개인 고 객의 일상과 여가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모 빌리티 수요를 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 벌 지역의 카헤일링, 법인 및 개인 고객을 위한 모 델도 동시에 개발해 1세대 니로의 위상을 이어간다 는 방침이다.

우선 기아는 니로 플러스의 전고와 전장을 늘리 고 실내를 슬림화하는 최적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공간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택시 및 개인·법인 고객 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사양을 적용해 차 량 사용 목적에 따른 편의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

니로 플러스는 '올인원 디스플레이'(All-in-One Display) 적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택시 전용 모델과 업무용, 여가용 등으로 활용 가능 한 개인·법인 모델 등 2가지 버전으로 구성된다.

니로 플러스의 외장은 새롭게 적용된 하이루프와 리어 글라스로 확장된 공간감을 연출했다. 전고와 전장이 기존 1세대 니로 대비 각각 80mm와 10mm가

늘어나 탑승객이 편하게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실내는 더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탑승객의 편안 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다양한 사양을 적용했다. 루프 라인을 높여 1열과 2열의 헤드룸을 각각 50 mm, 64mm 추가 확보했고, 1세대 니로 대비 두께를 줄인 센터 콘솔과 2열 도어 트림으로 탑승객에게 여유로운 거주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2열 시트 위치를 최적화해 28mm 늘어난 942mm의 2열 레그룸

특히 택시 모델은 2열 고객을 배려한 전용 동승 석 파워 시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석에서 동승석 시트를 앞 뒤로 이동하고 등받이 각도를 조 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 2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동승석 헤드레스트는 기본형 대비 높이를 43㎜ 낮춰 승객의 전방 개방감

2열 시트는 승객이 한 쪽 문을 통해 탑승해 반대 편 시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얇 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2열 시트벨트 체결부에는 LED 조명을 적용해 주·야간 시인성을 높였다.

택시 모델 전용 올인원 디스플레이도 니로 플러 스의 특징이다. 올인원 디스플레이는 센터페시아 중앙에 위치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 로, 내비게이션, 앱 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계, 음 성인식 기능이 통합 적용된 단말기다.

▲경찰서, 화장실 등 택시 관련 주요 운전자 관심 지점(POI) 정보 ▲잔여 주행가능 거리 진단 기반



사진은 니로 플러스 택시 모델 내부 모습.

〈기아 제공〉

주변 EV 충전소 실시간 점유 상태 안내 ▲시외 자 동할증 ▲빈차등·갓등·비상등 점멸 연동 ▲음성인 식 길찾기 및 날씨 정보 안내 등 기능을 지원한다.

기아는 택시 서비스 제공자가 운행에 필요한 주 요 정보를 올인원 디스플레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운전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사업자들과 업무 제휴 범위를 확 대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통해

올인원 디스플레이에서 추가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

기아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 및 지자체의 업무용, 의전용 관용차 수요에 적극 대 응하는 동시에 우수한 공간성을 갖춘 다목적 전기 차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니로 플러스 개인·법인 모 델도 마련했다.

캠핑에 특화된 개인・법인 모델 전용 '캠핑 패키

지'는 다음달 니로 플러스의 사전계약 시점에 공개

기아는 "실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니 로 플러스는 택시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일상, 업무 용으로 사용하고 휴일에는 캠핑 및 피크닉 등 여가 를 즐기는 고객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마제스티X 솔루스' 사고 명품 받자

가방·골프백 등 사은행사

금호타이어가 초고성능 프리미엄 럭셔리 타이어 '마제스티X 솔루스' (MajestyX SOLUS·사진) 출 시를 기념해 오는 9일부터 구매고객에게 럭셔리 사 은품 및 경품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신제품 '마제스티X'를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정판 프리미엄 골프 보스턴백 (4개 구매시)을 재고 소진 시까지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 경품을 제공한다.

마제스티X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 (Majesty SOLUS)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으로, 최고급 세단과 수입 차 등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금호타이어의 플래그십 타이어다.

마제스티X에는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 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컴파운드를 사용







했으며, 자사 기존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눈길 제동 력 등을 대폭 개선해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타이어 홈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딤플 (dimple) 설계로 분산시키는 '패턴소음 저감기 술'을 적용해 승차감을 높였고, 패턴 설계 해석 시 스템을 활용해 주행성능과 마모성능도 향상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몰며 주차장 헤맬 일 없겠네

지능형 자동 발렛 주차 기술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 시연···공간 확인·주차·픽업 장소 호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벤츠의 지능형 자동 발렛 주차 기술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 (IN-TELLIGENT PARK PILOT) 시연회를 진행 했다고 2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국내 스마트 주차 전문 기업 넥스파시스템과 글로벌 기술 및 서비스 공급 기업 보쉬와 함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넥스파시스템 빌딩에서 S-클래스에 적용된 '인텔 리전트 파크 파일럿' 시연을 진행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 은 운전자가 지정된 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 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기능을 활성 화하면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비어 있는 공간에 저속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스스로 주차하는

운전자는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을 통해 주 차 시설에서 주차하고 차량에서 모든 탑승객이 내 린 뒤 앱을 사용해 주차를 시작하면 주차장의 보 쉬 인프라 시스템이 주차 가능한 빈 공간이 있는 지, 사전에 확보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차량은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고 주차 시설 에 구축된 인프라와 통신하며 운전자 없이 주차 공 간으로 이동한다. 또 운전자는 앱을 사용해 차량이 지정된 픽업 장소로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운전자는 주차 가능한 구역을 찾거나 차량을 출 고하기 위해 이동하는 등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주차 시설 운영자는 주차 공간・시설운영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고 충전이나 세차, 정비 등 서비 스 등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 주차 기 술이 향후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있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벤츠의 목표는 럭셔리 경험의 핵심 요소인 시간 절약 효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며 "S-클래스의 스스로 주행하 는 기능은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자의 시간을 절약해 주지만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 기 술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주차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S-클래스에 양산 차량 최초로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을 차량 옵션 사양으로 사전 설치할 수 있다. 추후 EQS와 EQE에도 옵 션 사양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은 보쉬가 공급하는 스마트 인프라가 구 축된 주차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텔리전트 파크 파일럿'은 국가별 차량 및 시설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토요타, 자동차 기술 대학생 '2022 T-TEP' 개최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 전국서 10월까지 진행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오는 10월까지 자동차 기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산학 협력 교육프로그램 '2022 T-TEP'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T-TEP' (Toyota-Technical Experience Program)은자동차산업분 야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토요타자동차 의 사회공헌활동이다. 2020년부터 서영대학교 광주캠퍼스

와 파주캠퍼스를 비롯해 대림대, 부산

과학기술대, 서정대, 아주자동차대, 여 주대, 한국 폴리텍 대학 남대구 캠퍼스 등 전국 7개 자동차 대학, 8곳의 캠퍼스와 업무협

약을 맺고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T-TEP은 지난달 29일 서 정대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각 캠퍼스에서 이론교 육 및 실습강좌로 열린다.

참가학생들은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소통과 비즈니스 매너 ▲'개선', '현지현물', '도전', '존 중', '팀워크'로 구성된 토요타의 다섯가지 근본가 치인 '토요타 웨이' ▲'TEAM GP'를 통한 토요타 ·렉서스의 전동화 기술 등을 배우게 된다.

특히 TEAM GP는 토요타 본사의 글로벌 교육 과정으로 교육생들이 딜러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딜러 지점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테크



니션 특화교육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토요타 본사가 공인하는 인증 테크니션 자격이 주 어진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정, 토요타와 렉서스의 전동화 차량과 함께 학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인 재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렉서스 ES 300h,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총 8대의 차량을 각 대학에 기증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실습용 차량 을 협력 대학에 후원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5월 구매 고객 영화관 초대

28일 '시네마 데이'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세라티 시네마 데이' (Maserati Cinema Day)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네마 데이는 가정의 달 마세라티 고객이 가족 ·연인과 함께 프리미엄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5월 출고 및 출고 대기자 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열린다.

마세라티는 행사 당일 오후 영화관 전관을 대관

해 영화 관람 외에도 브랜드 영상 상영 및 환영 사, 선물 증정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마세라티 전국 8개 전시장을 통 해 초청장이 제공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지역에 따라 선정된 프리미엄 영화관에서 열린다.

이밖에 5월 가정의 달 맞이 기블리〈사진〉 모델 60개월 무이자 할부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선수금 30% 및 제휴 금융사 이용 조건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이용할 경우 평생소모품무상교환 및 연장보증 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또 프로모션 기간 중 르반떼나 콰트로포르테 계



약 고객에게는 평생 소모품 무상교환 및 연장보증 서비스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공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